

##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개선방안

서 현 경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어 온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한 특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 현재 수준별 수업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적절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나름대로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몇몇 선행연구들을 통해 수준별 수업의 운영방식과 교육효과에 대한 사례가 보고 되어왔다. 반면 학생들이 이러한 수준별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수용이나 의견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학교과와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성별과 각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 서론

각 시대의 교육에는 그 당시 사회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대량생산의 산업사회에서는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표였으나, 각종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소스로 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창조해 낼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사람을 키우는데 교육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여 지식의 창조자가 되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제공은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수준별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현재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준별 이동수업이다. 과거 우열반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능력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폭넓게 확산되어 왔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그동안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운영방법과 교육효과에 대한 사례는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 
- \* 2008년 8월 투고, 2008년 8월 심사 완료
  - \* ZDM 분류 : D44
  - \* MSC2000 분류 : 97D40
  - \* 주제어 : 수준별 이동 수업, 학생들의 인식

대부분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상급기관에 제출한 보고의 형태이다 보니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수준별 이동수업에 비교적 장기간 노출되어 온 학생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같은, 학생의 수용이나 의견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부족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별과 각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보충된다면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학교과와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태를 학생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성별과 각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 정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II. 수준별 수업

### 1. 수준별 수업의 도입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의 제 국면에서 그 처치 방법을 달리하는 수업을 수준별 수업이라 하며(이화진, 1998),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흥미·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수준별 집단으로 나누어 재편성하고, 별도의 교실에서 각 집단의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을 제공하는 수업을 수준별 이동수업이라 한다. 따라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수준별 수업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수준별 수업은 문민정부시절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교육개혁위원회(1994~1998)에 의하여 처음 권장되었다. 이들은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교육의 운영을 효율화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신(新) 교육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는데, 주요 활동내용은 네 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된 '교육 개혁 방안'으로 집약된다. 이 중 초·중등 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의 교육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 2년의 기간을 선택 위주로 하는 '개인별 교육과정'이 되도록 바꾸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수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 방안에 일관되게 학생 개개인이 특수한 조건이나 배경을 제대로 배려할 수 있도록 특수 교육이나 영재 교육의 강화,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특별 지도 실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강태중, 1998). 또한 영어와 수학처럼 학력간 격차가 큰 교과를 중심으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1996년도부터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제언들은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대부분이 구현되었다. 교육부는 1996년 3월

부터 수준별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운영 방식이 상당 정도 반영된 ‘수준별 이동 수업’ 시범학교(양재고, 용산고, 충남 공주고, 대구 경덕여고)를 선정하여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교육부의 행정적 영향력에 힘입어 현재는 많은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 2. 제7차 교육과정과 수준별 수업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형태로 크게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 속도의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교과에 내용에 있어 비교적 선후 관계나 위계가 뚜렷한 수학과 영어 교과에 적용되었으며,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 정도의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교과 내용의 위계가 심하지 않은 교과에 적용되었다.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11~12학년에서 적용되며 내용의 난이도가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적용해 온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은 적용상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수학교과 의 경우 2006년 8월에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안이 반영되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하에서 학생들은 매 학기말에 각 단계의 성공적인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학기에 새로운 단계를 이수하거나 이전 단계를 재이수 하게 되어 있었지만, 해당 단계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재이수 또는 특별 보충 과정 이수가 학교의 자원에 맡겨져 있어 그동안 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로 대체하면서 단계별 내용을 학년별 내용으로 전환하였고, ‘수준별 교육과정’ 중심의 수준별 교육에서 ‘수준별 수업’ 중심의 수준별 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개정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수준별 수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8.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1. 기본지침(12p)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 4. 교수·학습방법(222p)

라. 수학과 수업에서는 교육내용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견학습, 탐구 학습, 협동학습, 개별학습, 설명식 교수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타. 각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과 수준,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수준별 수업은 학교 상황에 맞게 수준별 집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수준별 수업은 내용 요소를 차별화하기보다는 내용의 깊이나 접근 방법에 차이를 두어 운영한다.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 교육과정에서 기본/공통 내용 외에 수준별 심화내용이나 보충내용을 별도로 제시하던 종래와 달리, 새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공통 내용만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대신 교수·학습방법으로서 수준별 수업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sup>1)</sup>(2007.10.29)」을 통해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전면 실시되고 고등학교 수월성 교육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 한 바 있다.

### 3. 수준별 수업에서의 교수-학습

수준별 수업의 목적은 각각의 학생들에게 그들의 수준을 고려한 적절하고 도전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성공하도록 하는데 있다. 즉 상위그룹에 속하는 학생에게는 심화 활동을 통해 적절한 도전적 과제를 담당하게 하여 잠재적 능력을 무한히 계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위 그룹에 속한 학생에게는 충분한 보충학습의 기회를 주어 적어도 기본 수준의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누적 결손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은 학습 능력, 선행 학습 요소, 학업 성취도, 학습 양식, 학습 방법, 흥미와 관심, 학습해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 지도 방법 등에 따라서도 결정되므로, 수준별 수업에서의 지향점은 기본 교육 내용의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모두에게 적합한 방법 및 자료를 제공해 주어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천경록, 2000).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제7차 교육과정 연수자료(2000)에는 각 수준별 교수·학습 내용이 다음과 같이 예시되어 있다.

수준별 교수·학습 내용

구분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심 화 반	1. 단계별 교과서의 기본 내용과 심화 내용을 학습함 2. 기본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게 함 3. 수학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문제 상황을 선택하여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함
기 본 반	1. 단계별 교과서 내용의 기본 내용을 학습함 2. 일괄된 주입식 전체 수업을 지양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문제를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함 3. 학생들 중 학력이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는 학생들을 조장으로 하여 협동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1) 이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수월성 교육을 혁신한다는 목적 아래 제안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일관적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당 2과목 이상, 과목별로 3~4 단계의 수준별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구분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보충반	1. 단계별 교과서의 기본 내용을 더 낮은 수준으로 하향 초동화하거나 기본 학습문제를 위주로 학습함 2. 일괄된 주입식 전체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나 활동을 제시하여 모둠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 4.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 편성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 편성방법은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학생들을 일정한 기준(성적, 흥미, 학습양식 등)에 따라 상·중·하 등의 수준별 집단으로 구성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내용·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수준별 반편성(학년 초에 학급 자체를 수준별로 편성하는 것), 수준별 이동수업(해당 교과시간에만 수준별로 별도의 교실로 이동하여 학습), 수준별 분단편성(학급 안에 수준별로 분단을 구분하여 편성) 등의 방법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기본 과정 수업을 마친 후 중간 판정에 따라 심화 및 보충 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잘 하는 학생들에게는 심화의 기회를, 기본 과정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보충의 기회를 제공하는 운영 형태이다. 세 번째 유형은 기본 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른 심화·보충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한 수업 안에 전체학습·소집단 협력학습·개별 학습 등이 공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별도의 수준별 반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준별 반이나 분단편성은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습해야 할 단원의 내용이나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5. 수준별 수업에서의 문제점

그동안 여러 교육전문가들의 연구와 시·도 단위의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수준별 수업 운영에 관련한 제반 문제들이 논의되어 왔다.

우선 수준별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위한 자료 개발과 관련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한 수준별 학습지의 개발·적용을 통해 획일적인 내용의 교과서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박기석·송원수, 2000), 수준별 과제 학습지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면 수학에 대한 흥미·태도 및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윤희송, 1999). 또한 뉴질랜드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참고로 하여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과 추론활동 및 의사소통 등의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는 교과서의 재구성을 제안하였다(이의원, 2001). 이외에 수준별 수업모형과 수준별 수업을 전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수준별 수업 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며(최승현·이화진, 2001),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4년부터 수준별 수업을 위한 별도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황혜정, 2006).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제6차와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7차 수학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참고가 될 자료가 제시되었고(박성택, 1998),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농촌 소규모 중학교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그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최택영·함석돈, 2001). 또한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되었는데(최승현·이대현, 2005), 설문결과를 보면 60%이상의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중 45.4%에 해당하는 학교만이 학급 간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수준별 동시 수업으로 인한 시간표 작성의 문제와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실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수준별 반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1학년의 경우 기본/보충을 근간으로 한 2개 반 형태가, 2학년의 경우 기본/심화의 2개 반 형태가, 3학년의 경우 기본/보충/심화를 근간으로 하는 3개 반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저학년의 경우 기본 능력의 숙달에, 고학년의 경우 세분화된 반편성과 심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반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 편성에 있어서도 수준별로 재편성된 학급 내에서 이루어진 협동학습이 문제해결 능력 신장 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전영주·정완수, 2002).

다음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시범학교들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광역시 소재의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A고등학교(시교육청지정, 1999~2000)의 경우 수준별 학습장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신장이라는 주제로 1학년 국어시간을 활용하여 학급 내 수준별 모둠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협동심, 창의성 등이 신장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수준별 교재의 부족과 교사의 업무 과중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B중학교(시교육청지정, 1999~2000)는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과정안 구안·적용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의식 전환 및 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역시 학습 자료 및 시설 기자재의 부족, 교사의 업무과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C고등학교(2002)의 경우 학급 내 수준별 분단 편성을 통한 자기 주도적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역동적인 탐구활동으로 인해 보다 활기찬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전국 단위 시범학교인 D고등학교(교육부지정, 1998)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탐색 및 실천이라는 연구주제로, 수준별 반을 편성하고 교과별 수준에 알맞은 열린 교수-

학습 수행을 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별 수업 전개도(flow chart)를 개발 활용하였는데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급 정원과다 문제, 교과별 교실과 학습 자료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범학교연구결과에서 수준별 수업이 학생 중심의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 개발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되었으며 학업성취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준별 교재 및 학습 자료 부족, 수준별 성취도 평가결과 성적 반영의 문제, 과밀 학급, 교사 업무 과중, 대학입시에서는 각 수준별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지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하위 집단의 열등감 및 교실 이동에 따른 문제점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현재 수학과 수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학생들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 Ⅲ.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 소재의 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 학교는 지금까지 4년간 모든 수학교과 수업을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해 오고 있다.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은 학년 초 처음 편성된 수준별 반으로 해당 교과시간에 이동하여 학습을 하고, 이 수준별 반은 학기말에 다시 재편성된다. 수준별반은 상/중/중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별 이동수업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대상은 2학년 남·여 학생으로 다음과 같다.

	1~3등급	4~6등급	7~8등급	계(명)
남	28	51	21	100
여	35	51	14	100

\* 등급은 1학년 2학기 종합성적을 기준으로 산출됨.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라는 연구 목적에 따라 '7차 교육과정과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 '수준별 수업에 대한 과거 경험',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에 관한 생각', '수준별 수업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들' 와 같이 소주제별로 분류되어 구성되었으며, 끝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나의 생각'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로이 의견들을 적을 수 있게 하여 앞 문항들에서 지적되지 못한 사항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결과는 남·여·학습수준에 따라 각각 별도로 정리하여 성별이나 각

수준에 따라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단 분석된 결과는 특정 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1. 7차 교육과정과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이해**

제7차 교육과정과 수준별 수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잘 알고 있다	2	0	1	3	1	0	0	1	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6	27	7	50	17	33	7	57	107
잘 알지 못한다	10	24	13	47	17	18	7	42	89

<표 2>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이해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잘 알고 있다	3	7	4	14	4	5	2	11	2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9	35	9	63	30	38	9	77	140
잘 알지 못한다	6	8	8	22	1	8	3	12	34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7차 교육과정과 수준별 수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수준별 수업에 대한 경험**

중학교 때 수준별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3> 수준별 수업에 대한 과거 경험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있다	18(11)	33(24)	11(4)	62(39)	28(24)	38(31)	11(10)	77(65)	139(104)
없다	10	18	10	38	7	13	3	23	61

\* 단 ( ) 안은 수준별 이동수업

약 70%의 학생들이 과거 수준별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 본 적이 있다는 학생들도 과반수이상이었다.



### 3.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

수준별 수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4> 수준별 수업을 하는 이유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학생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하려고	11	23	7	41	24	31	7	62	103
못하는 아이들의 실력을 보충하려고	1	1	1	3	0	3	0	3	6
상위그룹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주려고	0	2	1	3	1	4	2	7	10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부의 착각)	1	0	0	1	0	0	0	0	1
실력이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1	1	1	3	1	1	0	2	5
공부에 관심없는 애들 때문에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보니까	0	1	0	1	0	0	0	0	1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을 도입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5% 정도의 학생들은 '상위그룹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주려고'라고 대답하였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수준별 수업이 오히려 수준 간 격차를 벌어지게 하리라 우려하는 학생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준별 반에 따라 내용 접근방법이나 학습량 등에 차이가 생겨 이해정도도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에 기인한다 하겠다(<표 5>참고). 또한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5>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전체학생 학력향상	7	9	1	17	9	3	2	14	31
특정집단 학력향상 (상/중/하 선택 요)	7 (상7)	17 (상10)	8 (상5)	32 (상22)	10 (상7)	22 (상17)	10 (상10)	42 (상34)	74 (상56)
학습동기유발 및 욕구충족	5	8	4	17	10	3	0	13	30
개별학생존중 교육풍토조성	1	5	1	7	1	6	1	8	15

가장 많은 37%의 학생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특정집단의 학력이 향상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중 76%의 학생들이 상위집단의 학력향상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상반이 학습량이나 내용

접근방법에 있어 가장 심화단계의 수업을 받는 만큼 학업성취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표 4>에서 수준별 수업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학생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표 5>에서처럼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수준반별 수업내용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의 수준별 수업이 얼마나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표 6-1,2,3>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6-1> 수준별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 성적 향상 면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매우 도움	3	1	0	4	4	0	0	4	8
약간 도움	17	19	9	45	18	12	6	36	81
도움이 안됨	5	20	5	30	11	27	7	45	75
오히려 더 나빠짐	3	11	7	21	2	12	1	15	36

<표 6-2> 수준별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매우 도움	4	1	0	5	3	0	1	4	9
약간 도움	16	23	8	47	13	10	4	27	74
도움이 안됨	7	21	8	36	16	22	5	43	79
오히려 더 나빠짐	1	6	5	12	3	19	4	26	37

<표 6-3> 수준별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 수학 학습 면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매우 도움	4	0	0	4	9	1	0	4	8
약간 도움	14	27	10	51	19	11	6	36	87
도움이 안됨	8	18	6	32	7	31	7	45	77
오히려 더 나빠짐	2	6	5	13	0	8	1	9	22

성적 향상 면이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수학 학습 면 모두에 있어 특별히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아주 적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쪽과 비교해서 그 반대인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약간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중위그룹의 학생들이 많았다. 개인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는 중위그룹의 학생인 경우, 상반에 편성이 되면 심화된 학습내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또 하반에 편성이 되면 어수선한 수업분위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상위그룹 학생들 중에

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으며, 하위그룹 학생들은 대부분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교실 수업분위기가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짐작할 수 있다.

#### 4.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부담으로 따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표 8>을 보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중하위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부족한 기초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고 상위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향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 중 15% 정도가 선수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학생들이었다. 이를 보면 실제로 수준별 수업이 학교현장에서 과도하게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일부의 우려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교육을 받는지 여부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그렇다	2	10	1	13	6	6	2	14	27
아니다	26	41	20	87	29	44	12	85	172

<표 8> 사교육을 받는 이유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선수학습을 위해	1	1		2	5	2		7	9
기초가 부족해서		8		8	1	1		2	10
다녀야 할 것 같은 압박감 (다른 친구에게 뒤처질까 불안해서)		1		1	3			3	4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1		1					1
학교수업만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1	1	2	2			2	4
부족한 부분 보충		4		4	2	2	3	7	11
심화학습을 위해	1			1					1
수업 중 집중을 안 해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2		2					2
성적향상을 위해	3	3		6	2	2	1	5	11
혼자 수학공부하기 어려워서					1			1	1
학교수업(집단교육체제)에서는 질문하기가 어려워서					1	2		3	3
학교수업내용을 복습하려고						1		1	1
대학진학을 위해					1	1		2	2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9>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학습 집단(상/하)간의 위화감	7(25%)	11(22%)	7(33%)	25	5(14%)	9(18%)	4(29%)	18	43
산만한 수업분위기	1	13	4	18	0	23	5	28	46
바뀌는 교실환경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	4	9	2	15	7	4	1	12	27
수업 진도 준수의 어려움	5	2	4	11	3	2	2	7	18
교실이동에 따른 시간소요	10	6	2	18	16	12	2	30	48
각 수준반별 교과내용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점	1	9	2	12	4	5	0	9	21

<표 9>를 보면 하위그룹의 학생들이 학습 집단 간의 위화감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산만한 수업분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학생들도 주로 중·하위그룹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습의욕이 낮은 학생들이 대부분인 하반수업에서 산만한 수업분위가 수업에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동수업으로 환경의 변화와 시간소요를 문제점으로 꼽은 학생들은 주로 상·중위 그룹의 학생들이었고, 하위그룹학생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개인별 인터뷰 결과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학습에 몰입하는 상·중위그룹 학생들과는 달리 하위그룹 학생들 중에는 이동수업을 통해 다른 반 친구와 친해지게 되어 좋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을 보면 오히려 교실이동을 무리한 일과 중 이벤트 정도로 여기는 학생들도 있는 듯 하다. 각 수준반별 수업내용의 차이가 문제점이라 응답한 학생들은 주로 상·중위 그룹학생이었는데 이는 학습의욕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이 중하위반에 편성되었을 경우 상반에서 다루어지는 심화내용이나 교과내용에 대한 접근방법과 달라 손해를 볼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것은 수준별 수업이 학습능력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각 수준반별로 교과내용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교과 외 보충학습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이 응답한 다음 <표 10>을 보면 좀더 확실히 드러난다.

<표 10> 각 수준반별 수업내용 차이에 대한 의견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만족한다	18	26	13	57	23	15	6	44	101
불만이다	10	25	8	43	12	35	8	55	98

\* 무응답 남1명

전체적으로는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한 수치로 나왔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남·여 모두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만족한다'가, 여학생의 경우 중·하위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 '불만'인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습량이 달라 각 반의 수준이 고정되어 버림.  
(상반과 하반의 격차만 커짐. 내용 접근방법에 따라 이해정도도 달라짐.)
- 기회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가르쳐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 그러면 시험도 따로 봐야 한다.

## 5. 학습 집단 편성과 학습 후 평가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때, 학습 집단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1> 수준별 수업에서 학습 집단의 편성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수준별 반 편성(학년 초)	5	4	2	11	9	3	0	12	23
수준별 이동 수업(매 학기)	6	13	3	22	9	9	3	21	43(22%)
수준별 분단편성	0	4	2	6	4	1	2	7	13
소집단 상하협력학습 구성	8	12	7	27	7	20	3	30	57(29%)
별도의 학습집단 편성이 불필요함	9	18	7	34	6	18	6	30	64(32%)

그동안 진행해온 이동수업에 익숙해져서인지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지적하면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선택한 학생이 22%에 달했다. 반면 이질집단으로 구성된 학급 내 소집단 상하협력학습 구성을 선택한 학생이 29%였고, 별도의 학습 집단 편성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전체의 32%나 되었다. 결국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수준에 따른 별도의 반편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학습 집단 편성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한 후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42%가 현행처럼 각 수준별 수업내용을 적당히 배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2> 수준별 이동수업에서의 평가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교과수준의 기본과정만	5	13	4	22	7	13	3	23	45
각 수준별 수업내용을 적당히 배분	13	19	6	38	25	17	4	46	84(42%)
각 수준반 별로 따로 평가	0	13	4	17	0	10	4	14	31
수준별 문제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7	2	4	13	2	6	2	10	23
잘 모르겠다	3	4	3	10	1	4	1	6	16

다음, 수학학습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업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30%의 학생들이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을, 18%의 학생들은 학급 내 소집단 상하협력학습을, 17%의 학생들은 질문학습을, 그리고 12%의 학생들이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을 선택하였다. 고등학교 수학학습내용이 보다 높은 고등사고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기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표 13>의 결과는 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고,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이기에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에 기인한다.

<표 13> 수학학습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업형태

응답종류	남(100명)				여(100명)				합계 (200명)
	1~3등급 (28명)	4~6등급 (51명)	7~9등급 (21명)	계	1~3등급 (35명)	4~6등급 (51명)	7~9등급 (14명)	계	
수준별 이동수업	7	6	1	14	3	6	0	9	23(12%)
학급 내 수준별 분단학습	1	2	0	3	1	2	0	3	6
소집단 상하협력학습	4	12	4	20	2	12	2	16	36(18%)
토의학습	3	6	1	10	4	4	0	8	18
예고 과제 발표학습	1	2	3	6	3	6	2	11	17
질문학습(학생이 교사에게)	7	9	1	17	9	5	3	17	34(17%)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	4	10	10	24	12	16	7	35	59(30%)

6. 수준별 이동수업을 마친 소감

끝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14>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솔직한 나의 생각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준별 이동수업이 아니면 잘하는 애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있고,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잘하는 애들 눈치 보여 못 물어보았는데 쉽게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하반 학생)</li> <li>▪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비슷한 성적의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 선생님이 설명하시기도 더</li> </ul>
----	--

	<p>편할 것 같다.(하반 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좀 어려운 설명을 해도 모두 이해가 되고 계산 과정을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진도도 더 많이 나가고 문제도 더 많이 풀 수 있다. 하지만 반을 옮겨 다니는 것이 힘들다.(상반 학생)</li> </ul>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력이 낮음에도 상반이어서 수준에 맞추어 수업하느라 힘들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고, 정보교류차원에서 이점도 있는 것 같다.</li> <li>▪ 이동이 불편하지만, 수준별 수업을 하니 마음은 더 편하다.</li> </ul>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 이동시 너무 불편하다(물품 분실 위험, 정서적 불안감, 쉬는 시간에 쉴 수 없다)</li> <li>▪ 상반은 아니었지만 수준별 수업을 하면 더 도움이 되겠지 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었으나 수업에 임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았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실력이 낮은 만큼 더욱 많은 내용과 꼼꼼한 수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너무 힘들었다. 내용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니 전체적으로 하반은 진도도 항상 늦어 시험 준비하기 힘들다.</li> <li>▪ 수준별 반마다 진도가 조금씩 달라 우리 반으로 돌아와서도 다른 수준의 같은 반 친구에게 물어보기 힘들다.</li> <li>▪ 실력 향상과 이동수업은 무관한 것 같다. 결국 수업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닐까? 수준별 이동수업을 안 해서 잘하는 친구들이 크게 손해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진도를 늦추고 천천히 설명하면 잘하는 애들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옆에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걸 배우고, 약간의 경쟁의식이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li> </ul>

#### IV. 수준별 이동수업의 개선방안

앞의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숙고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크게 ‘학습 집단 편성’, ‘교수-학습 지도면’, ‘학습의 평가’ 로 분류하여 주제별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학습 집단 편성

<표 9>에서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으로 22%의 학생들이 ‘학습 집단(상/하)간의 위화감’을 선택하였다. <표 11>의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 편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별도의 수준별 반 편성 없이 학급 내에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표 13> 수학학습을 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업형태에 대한 질문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준별 이동수업 외에 교사 중심의 설명식 학습, 질문학습, 소집단 상하협력학습, 토의학습 등을 선택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수준별 이동수업과 수준별 수업을 강조하는 교육 사조로 인해 도입 초기와는 달리 많은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에 대해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서적인 면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인 것은 사실이다. 인접해 있는 반끼리 묶어 수준별 반을 편성하고, 이동교실에서의 고정 좌석배치와 더불어 꾸준한 격려를 통해 학습의욕을 북돋운다면, 이동 수업에 따른 물리

적인 제 문제나 정서적 거부감 등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정해진 수준별 반에서 수업을 받으면서도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표6-1,2,3> 참고) 문제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수업은 기본 과정을 마친 후 흥미와 관심, 능력에 따라 심화 또는 보충 과정을 선택 또는 제공하는 운영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업[기본과정]자체를 다양화하는 것'이다(권태덕, 2000). 이는 기본과정 수업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이 수준별 이동수업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수준별 수업은 학교 상황에 맞게 수준별 집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 224p).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수준별 고정 학급, 수준별 이동학급, 학급 내 수준별 학습 집단, 학급 내 협동 학습 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 집단간 인원 구성을 달리할 수도 있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03).

전라남도 순천의 팔마 중학교에서 수학 수업 시 성적별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학업 성취를 3년간 종단 추적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사례를 보면, 이동 수업만을 경험한 학생이 타 집단에 비해 성취도면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최승현·이화진(20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준별 수업에서 집단 구성은 유연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적과 같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 학습 흥미, 학습 양식 등과 같은 개인차 변인들을 반편성의 한 기준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한 학기동안 고정된 집단구성 보다는 학습 주제나 단원의 성격에 따라 동질 집단 또는 이질 집단을 구성하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중에도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집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집단 협동 학습의 기회도 제공한다면 사회성이나 협동성 배양 등과 같은 정의적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 2. 교수-학습 지도

<표 5>를 보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특정집단(특히 상위 그룹)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라 응답하였다.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준별로 다르게 제공되고 있는 교과내용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보충·심화 문제의 수준이 학업성취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학생의 경우 상반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게 되므로 열심히 노력하는 하반 학생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져 실력 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2006년 7월에 열린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의 자료를 보면, 개정의 기본 방향에서 '수준별 수업 내용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 한다(115p)' 라고 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지도 받기 원하는 학생



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하여 동일하게 치러지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수준별 수업의 특성상 교사는 각 수준반별로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을 고려하여 주어진 수학적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수학적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준별 수업이 수학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경험의 제한'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우려대로 낮은 능력의 학생을 더 낮고 단순한 수준에 제한시키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습의욕이 높은 학생들에게 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기 중이라도 수준별 반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고, 각 수준반별 심화·보충 학습지도 학교홈페이지에 '공부방' 등과 같은 메뉴를 이용하여 탑재함으로써 다른 수준반의 학생들도 학습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각 수준반별 담당교사들 간의 수시협의를 늘 이루어져서 각종 평가가 특정 수준 반에 유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난제는 중·하위 그룹학생들로 이루어진 하반 수업이다. <표 14>의 어느 학생의 말처럼 실제로 하반 수업의 분위기는 다소 산만하고 학생들의 학습의욕도 상당히 낮아 늘 다른 반에 비해 교과서의 진도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 따라서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바쁘게 쫓기듯 수업에 임하게 되어 수준별 수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버거운 짐이 된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교과내용 지식의 전수도 중요하지만 학습 조력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해를 촉진하는 방식을 고안해 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료 나누어 주기, 동료 평가하기, 자신의 일 기록하기, 자신의 진보를 기록하기, 자신의 과제를 계획하기, 수업 운영에 대해 건의하기 등의 가급적 많은 책임을 주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고(황해정, 2006),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반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학교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수적이다. 또한 하반 학생들은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다른 수준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규수업 이후의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보충시간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도 늦어지는 진도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 3. 학습의 평가

수준별 수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중 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평가

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다른 수준의 학생들에게 같은 수준의 지도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사실상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학생 개개인의 수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을 그들의 수준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미래직업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바라는 어떤 최소한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평가란 사전에 설정된 이런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최소한의 학습목표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대외평가들은 이러한 입장에서 치러지는 것이다.

수준별 수업에서의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최승현·이대현(2005)은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고사(공통)와 수행평가(수준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기고사는 모든 성취수준별 학생들에게 공통 문항을 제시하고, 수행평가는 각 수준별 지도교사가 학생 수준에 맞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는 교사의 수행평가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해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준별로 각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각 수준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대학 입시 등에서 심화 과정에서 이수한 학생과 기본 과정에서 이수한 학생을 차별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권태룡·김종진·홍영기(1999)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준별로 나누어 학습한 학생들을 수업에서 가르친 내용과 근접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행평가와 총괄평가로 이원화된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하반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수행평가의 비율을 40~50%정도로 정하였다. 특히 총괄평가(정기고사)는 상·중·하 수준의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고 비율은 30:30:40 정도로 하였으며, 하반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중·상 수준 문제들을 학기 초에 미리 프린트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주어진 프린트 내용을 약간 변형하여 80%정도를 출제하며 20%정도는 교사의 재량으로 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과 더불어 1994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에 집중되고 있다. 평가는 학생 행동의 질적 기술과 양적 기술(수량화)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의 바람직한 정도에 관한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수준별 학습의 평가는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학습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를 알려 줄 수 있어야 하고, 교사의 교수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수·학습 활동과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준별 수업에서의 평가는 수행평가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생각된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기고사는 수준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실시하되, 수준별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향상정도는 수행평가를 통해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 V. 맺음말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교육의 문제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당면 과제에 직면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태를 학생들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 실제 운영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추가하였다.

설문결과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학생의 경우 수준별 수업이 상위그룹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특정집단 특히 상위집단의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그동안 이루어진 수준별 이동수업에서의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준별 이동수업의 개선방안으로 학습 집단 편성과 관련하여, 한 학기동안 고정된 수준별 집단구성을 유지하며 관례화시키기 보다는 학습주제나 단원의 성격에 따라 여러 형태의 집단 구성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교수-학습 지도에 있어서, 기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각 수준반별 심화보충자료를 학교홈페이지와 같은 것을 활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탑재한다면 다른 수준의 학생들에게도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평가와 관련하여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기고사는 수준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실시하되 각 수준반별 담당교사들 간의 수시협의를 늘 이루어져서 각종 평가가 특정 수준 반에 유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준별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향상정도는 수행평가를 통해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수학적 재능(또는 학습능력)에서의 개인차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 개인의 수학적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교수(teaching), 연습, 그리고 숙달을 통해서 충분히 더 발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도전적인 수학적 활동을 통해 학생을 격려하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한 수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함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Gronlund, N. E. (1981).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Teaching*,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강성중 (2005). 수준별 이동수업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분석 사례 (중학교).
- 강태중 (1998). 교육개혁위원회 활동의 정리, 교육진흥 39, pp.139-151
- 김성국 (2001). 토의식 수업을 적용한 수준별 소집단 협력학습이 학력신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4(1), pp.91-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2003).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6-75호.
- 권태룡·김종진·홍영기 (1999). 수학교과 수준별 평가 방법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E <수학교육 논문집> 8, pp.3-15
- 박기석·송원수 (2000). 교과서를 재구성한 수준별 학습지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자기학습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3(2) pp.69-82
- 박성택 (1998). 수학과 수준별 교육과정 연구, 한국수학사학회지 11(2), pp.29-34
- 이의원·김진상·이명희 (2001).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교재의 재구성 방안,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E <수학교육 논문집> 12, pp.93-102
- 윤희송 (1999). 수준별 과제 학습지 구안 적용이 수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수학회 논문집 2(1), pp.157-166
- 전영주·정완수 (2002). 수준별 협동학습이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E <수학교육 논문집> 13(1), pp.275-286
- 천경록 (2000).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제7차 교육과정 연수자료, pp.3-7
- 최승현·이화진 (2001). 수준별 수업 설계 및 7단계 수학과 수준별 수업 자료 개발의 실제, 대한수학교육학회 2001년도 추계 수학교육연구발표대회논문집, pp.605-633
- 최승현·이대현 (2005). 수학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탐색,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A <수학교육> 44(3), pp.325-336
- 최택영·함석돈 (2001). 수학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A <수학교육> 40(2), pp.179-194
- 황혜정 (1998). 현행 수준별 수업 분석에 기초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한 처방, 대한수학교육학회논문집 8(1), pp.183-197
- 황혜정 (2006). 국가 수준에 준하는 수학과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활용, 한국학교수학회 논문집 9(3), pp.317-345

# **The opinions of students about level-based class and improving methods about level-based instruction on mathematics**

**Hyun-Kyoung Seo**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E-mail : chanwo@hanmail.net

The key feature of the 7<sup>th</sup> Education curriculum, which is applied by order by year from 2000, is represented by differentiated curriculum. In order to embody differentiated curriculum, it is extensively recommended the level-based instruction. Level-based class basically has purposes to give students matched study experiences in accordance with their abilities and to help all students to understand what they have learned through providing differentiated instruction with considering the learners' stand points. The preceding researches have reported many cases about operating methods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for the level-based instruction, In the meantime, researches about students' acceptances or opinions related to the level-based instruction are not sufficient.

In this research, students opinions about level-based instruction are analyzed, based on the distinction of sex and level, and improving operational methods are suggested.

---

\* ZDM Classification : D44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D40

\* Key Words : level-based class, opinions of students